

정치/행정 단신

2012년 시무식...고성군



고성군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고성문화의집에서 전 직원 및 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2012년 시무식...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전경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2012년 시무식...속초소방서



속초소방서는 지난 2일 속초시 도문동에 있는 중훈탑을 참배하고, 오전 10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봉사활동



한나라당 강원도당 여성중앙위원회(회장 양준아)는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오후 2시 춘천시 양지노인마을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위문품 전달과 말벗되어 드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추진

국민권익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현실화·수입차 수리비 부당청구 개선' 권고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제한적 보상 때문에 생기는 보험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의 적정 수리비 협의를 위한 민간 협의체가 구성되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보상금 부족에 따른 피해문제를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부상 최고 2천만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부당청구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당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수리비에 대한 자율협의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수입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2.9%인 51만 8,322대이다.

하지만 수리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며 건당 평균 약 28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공임도 평균 4만~5만 원으로 국산차의 약 2배 정도 높아 수입자동차와 사고발생시 고가의 수리비가 청구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입원율이 약 7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이나 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감소해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몸집 불러 고향에 돌아온 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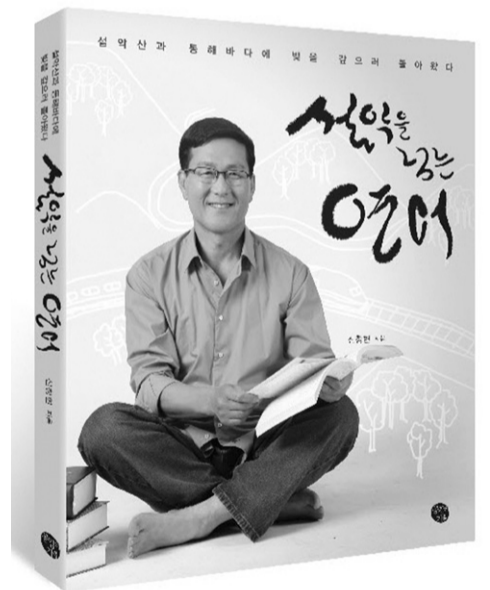
민주통합당 신창현 후보 '설악을 넘는 연어' 출판기념회

장관, 김성제 의왕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에 발간한 '설악을 넘는 연어'는 필자가 의왕시장 때 하수처리장에 관사를 짓겠다는 약속으로 주민반대를 설득한 사연을 비롯해 의왕세계연극제 개최 무산으로 얻은 뼈아픈 교훈, 청와대 비서관 시절 동강댐 건설을 저지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가능하게 했던 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저서에는 또 그동안 신후보를 가까이서 지켜본 속초고등학교 친구, 해병장교 동기, 의왕시장 비서 등의 글과 신후보가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도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천글을 썼다.

최광호 기자



“연어가 태평양에서 몸집을 불러 남대천으로 돌아오듯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설악권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신창현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오후 3시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설악을 넘는 연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천정배 전법무부

민주통합당 공동지역위원장 체제로

송훈석·이동기·전태욱...현직 송의원 상임공동위원장에

아권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한 민주통합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장으로 송훈석 국회의원과 이동기 후보, 전태욱씨 등 3명이 공동 임명됐다. 또 현직인 송훈석 의원은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통합에 따른 지방조직 정비에 의해 공동지역위원장을 인선했으며, 현직 국회

의원은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역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인선된 송훈석 의원은 “민주통합당 첫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인선돼 우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권통합 정당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조속히



송훈석



이동기

조직정비와 함께 당의 외연을 넓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강원도를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